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이 인간다움의 표상이라 본다. ‘죽음’이라는 소재는 인간의 역사를 가로질러 산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며 삶의 연장에서 의미가 부여된 의식적 행위로 구체화되어왔다. 이는 죽음을 단순히 기피하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인간 존재만의 공유된 특징이다. 제시문 (나)는 인간이 고릴라를 관찰하는 상황이며 고릴라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추측하고 있다. 한 고릴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 관찰을 통해 고릴라들의 행위는 본능적이며 죽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는 인간에게 죽음은 부패에서 연상되는 추악함이며 두려움 그 자체이므로 피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또한 인간은 삶에서 죽음의 공포를 갑작스럽게 느끼기도 하며 이에 따라 삶에 대한 애착이 죽음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들은 죽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가의 여부로 ((가),(다))와 (나)로 나뉠 수 있다. ((가),(다))는 인간이 죽음을 느끼는 주체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나)는 죽음에 대한 인지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그저 동물은 죽음에 대해 인지를 못한다고 추측할 뿐이다. 또한 제시문 (가)와 (다)는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가)는 죽음을 인간생활의 당연한 현상이자 삶과의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보지만 (다)는 죽음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며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2]

제시문 (라)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을 접하는 것의 유무가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 실험한 것이다. [실험 1]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단어를, [실험 2]는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을 접함의 여부를 달리 한 두 집단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죽음에 대한 단어의 완성률은 제시된 표에 나타나며 각 집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를 측정했다. 공통적으로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단어와 상황을 접한 ‘갑’ 집단이 ‘을’ 집단보다 약 3배 정도 낮은 완성률을 보여준다. 따라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을 접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연상을 상대적으로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는 인간이 죽음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단어와 상황을 접한 ‘갑’ 집단의 연상 수치가 ‘을’ 집단보다 더 높게 나와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는 적극 수용할 수 있다. (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고자 한다고 본다. 즉, 실험자들은 죽음과 가까운 단어와 상황을 접한 이후로 갑작스럽게 일상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의 관점에서 ‘갑’ 집단의 실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실험에서조차 죽음에 대한 단어를 쓰기 꺼려했을 것이다.

제시문들을 통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를 거부하려 한다는 (다)의 관점이 타당해 보인다. 실험결과의 표면적 해석만으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의 관점을 투영했을 때, 실험결과가 인간의 심리와 연관되면서 필연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